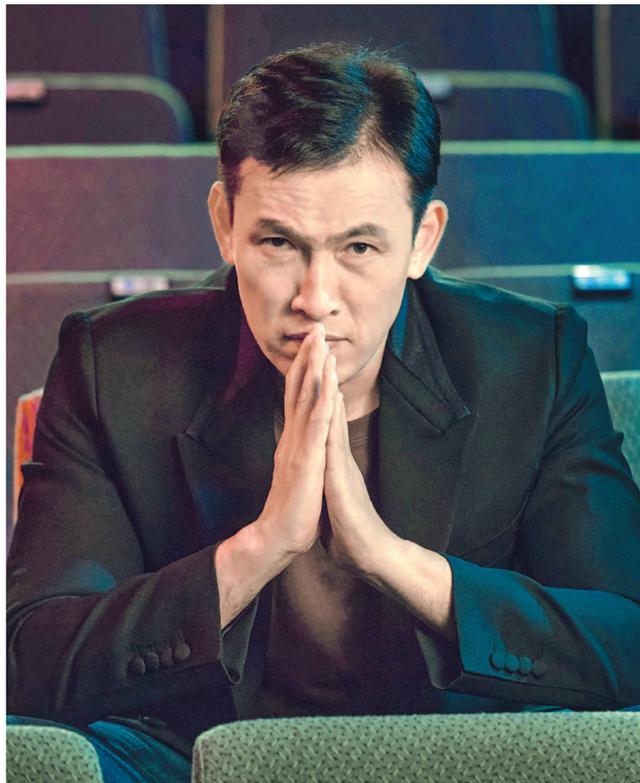


“악역은 내 인생...협상국은 외모 덕 봤죠”

내달 개봉하는 '강릉'서도 조폭역 '살벌한 눈빛 연기 인정받아 기뻐' 20번째 일주일에 4일은 몸만들기 '후배들이 '몸 좋다'고 부러워해요"



23일 종영한 MBC 드라마 '검은태양'의 유오성은 "나이가 들수록 동료들, 나를 선택해준 제작진 등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커진다"면서 "신조도 '범사에 감사하라'이다"며 웃었다. 카메라가 비추자 어느새 악역의 카리스마를 드러냈다. 사진제공 | MBC

검은 교복을 입고 좁은 골목을 질주하던 철부지 소년이 20년 뒤 못 남성의 '우상'이 됐다. 배우 유오성(55). 2001년 영화 '친구'에서 드러낸 강렬한 카리스마를 20년 만에 안방극장과 스크린에서 원 없이 풀어내고 있다. 23일 종영한 MBC '검은태양'과 11월10일 개봉하는 주연 영화 '강릉'을 통해서다.

이미 '검은태양'으로 열기를 달아 올렸다. 극중 국가정보원 요원 남궁민과 대적하는 테러리스트 백모사를 연기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형성한 유오성은 시청률을 8.8%(닐슨코리아)까지 끌어올렸다. 26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센터에서 만난 그는 "인생의 '3쿼터'를 기분 좋게 시작한 셈"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 "20년간 몸 관리, 후배들도 부러워 해"

유오성은 "50대를 막 알아가는 지난해에서야 인생의 '3막'이 시작됐다고 생각했다"면서 "3막을 촬영 현장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도 행운"이라고 말했다.

"언제 어떤 작품에 불려갈지 모르는, 이른바 '비정규직'이니 늘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2002년 권투 영화 '챔피언' 이후로 매주 4일 이상 체육관에서 몸을 풀어왔죠. 꼬박 20년을 그 래왔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직업처럼 관

리는 필수예요. 덕분에 현장에서 후배들로부터 '몸 정말 좋다'는 부러움을 받아 뿌듯합니다."

KBS 2TV '장사의 신-객주 2015', '너도 인간이니' 등을 통해 선보인 악역들

다시 소화한 것도 "다소 협상국은 외모 덕분"이라며 너스레를 떠다.

"악역은 '가성비'가 좋아요. 주인공이 다 싸워주고, 딱 '눈빛'만 쏘면 되거든요. 하하하!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 역

을 인정받는구나 싶어요. '검은태양'에서는 조직원도 별로 없어서 정말 외로웠어요. (남궁)민이와도 몇 장면 못 찍었고요. 때때로 조직원으로 등장하는 단역 연기자들에게 '우리 (극중)죽기 전에 밥이나 먹자'면서 밥을 사주기도 했죠."

● "데뷔 30주년 코앞, 느낌이 좋아"

드라마를 끝내자마자 곧 개봉하는 영화 '강릉'으로는 장혁과 함께 조폭폭력배의 이야기를 그린다. 누아르 장르로 본격 회귀하는 셈이다. '친구'를 떠올리게 한다는 말에 "인생 3막의 첫 영화로서 의미가 크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1992년 연극 '뫼비우스'로 데뷔해 내년 연기생활 30주년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감회가 새롭죠. 사실 '친구' 속 준석이는 딱 한 번 싸워요. '강릉'에서는요? 딱 두 번 싸워요. 하하! 그래도 강렬함은 아마 '친구' 못지않을 거예요. 그동안 얻은 경험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해요. 제 인생 3막, 잘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막바지,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자마자 "어, 아들!"이라고 답하는 목소리가 다정다감하다. 작품 속 카리스마와는 판판이다. 30여 년을 활동해왔지만, 여전히 '반전'은 끝나지 않은 듯하다.

"올해 21살 된 큰아들한테 늘 '내 30년 후배'라고 말해요. 아들이기 전에 친구 같죠. 아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상대와 비교하지 말 것.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몫이 작아 보여도 우리는 늘 나만의 '주인공' 이랍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백건우, MBC 'PD수첩' 상대 11억 손배소



백건우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아내 윤정희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백건우는 25일 밤 "MBC에서 지난달 7일 방영한 PD수첩 '사라진 배우, 성년후견'의 두 얼굴'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저와 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도 많았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남동생은 누나가 방치되고 고립됐다면서 백건우가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윤정희를 소홀히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백건우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오징어게임' 이정재·이병헌 동반 미국행



이정재

이병헌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와 이병헌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열리는 '2021 아트+필름 갈라' 행사에 참석한다. 26일 두 사람의 각 소속

사 측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에서 열리는 행사에 초청받았다. 소속사 측은 "이전에도 함께 했던 인연이 있어 올해에도 좋은 기회가 돼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갈라 행사에는 이병헌과 이정재를 비롯해 할리우드 스타 감독 스티븐 스피버그와 화가 에이미 셰럴드, 케네티 웨일리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석한다.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도 공식 초대를 받고 현재 일정은 논의 중이다.

BTS 'PTD' 'DNA' 일본서 플래티넘 인증



방탄소년단

그들 방탄소년단이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히트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와 'DNA'에 대해 신규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26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두 곡이 25일 일본 레코드협회가 발표한 9월 '플래티넘' 인증 작품 명단에 수록됐다. 일본 레코드협회는 곡의 누적 재생 횟수에 따라 플래티넘(1억회 이상), 다이아몬드(5억회 이상)으로 구분해 매달 인증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싱글 CD '버터'(Butter)는 7월 누적 출하량 25만 장을 돌파해 앨범 부문 일본 레코드협회 '플래티넘' 인증 작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요계 "대중음악공연 거리두기 완화해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작),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대한가수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단체들은 26일 "대중음악공연은 주로 컨벤션센터나 체육관 등 정규공연시설 외에서 개최돼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라는 거리두기 지침 4단계는 실질적으로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차별"이라며 거리두기 완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어 "대중음악 산업군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뮤지컬과 연극 등 다른 공연 장르와 차별 없이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마스크 착용자와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볼드윈 '총기 사고' 후 모든 프로젝트 중단



알렉 볼드윈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의 영화 촬영장에서 발생한 '소총총 발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모두 중단했다. 26일(한국시간) 미국 피플은 알렉 볼드윈이 영화 '리스트' 촬영장의 우발적인 총격사건으로 다른 프로젝트들을 취소했고, 현재 슬럼프에 잠겨있는 알렉 볼드윈이 자숙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사망한 촬영감독의 가족을 만나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징어게임' 열풍에 일본은 배가 아프다?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 인기 배경에 넷플릭스라는 '시스템'의 힘이 작용했다는 해외의 시각이 나왔다. 또 일본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관심을 애써 꺾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거나, '데스 게임' 스토리의 원조국'으로서 관련 현상을 분석하며 새로운 콘텐츠 모색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인기의 요인 등에 대한 다양한 해외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 사진제공 | 넷플릭스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유력 방송사 BFM TV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소개했다. 방송사는 "최근 10년 동안 음악(그룹 방탄소년단), 영화(기생충), 시리즈(오징어게임), 게임쇼(복면가왕) 등이 세계를 정복했다"고 밝혔다. 이를 "막대하게 투자한 신기술"과 "젊은 세대의 노하우" 그리고

"1990년 후반 이후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등에 기대 성과를 꼽았다. 최근 영국 BBC도 엇비슷한 시각으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분석한 바 있다.

다만 BFM TV는 넷플릭스 측을 인용해 '오징어게임'의 "예산치 못한" 세계적 인기에는 "스트리밍 거대 기업의 추천 시스템"도 작용했다고 썼다. 이용자들의 취향에 기반한 콘텐츠 자동추천 시스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유입→콘텐츠 인기→또 다른 이용자 유입→이용자 증가'의 '플라이휠 효과'가 발휘됐다는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또 다른 시선이 나온다. 최근 일본 경제매체 현대비즈니스에서 자유기자가 아마모토 나오코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체감되지 않는다"면서 '배틀로얄' 등 '데스 게임'을 다룬 일본 작품이 많아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고 깊이도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심지어 "의도적으

로 조작된 랭킹"이라는 표현으로 전 세계 넷플릭스 '많이 본 TV쇼(프로그램)' 1위 기록을 의심했다.

반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박하영 일본 오사카 통신원은 "만화 '라이어 게임'은 왜 '오징어게임'이 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현지 방송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징어게임'의 연출자 황동혁 감독은 작품을 구상하며 '라이어 게임' 등을 떠올렸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통신원은 "콘텐츠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현지 분위기를 전하면서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 "오마에다 토와코와 세 명의 전 남편" 등이 해외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루나·코튼캔디 홍보전...아이돌 드라마, 실제 '아이돌' 뺨치네

'너의 밤이...' '아이돌' 내달 첫 전파 방송 앞두고 SNS 활동하며 팬덤쌓기 '합주영상 등 실제 그룹 같다' 호평



실제 아이돌 세계를 연상시키는 SBS 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 (왼쪽 사진)와 JTBC '아이돌:더 룩' (오른쪽 사진) | SBS·JTBC

실제 아이돌 그룹의 데뷔 과정 못지않다. 가상의 아이돌 그룹을 주인공 삼은 두 편의 드라마가 첫 방송을 앞두고 극중 그룹 알리기에 적극 나서며 시청자 호기심을 끌고 있다. 11월7일과 8일 잇따라 방송을 시작하는 SBS '너의 밤이 되어줄게'와 JTBC '아이돌:더 룩'(아이돌)이다. 각 제작진은 타깃 시청자층인 10~20대를 노려 일찌감치 드라마 속 그룹의 '팬덤' 쌓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너의 밤이 되어줄게'는 유키스 이준영, 뉴이스트 김중현, 워너원 출신 윤지성, 에이비식스 김동현, 배우 장동주의 보이밴드 루나를 내세운다. 정인선이 그룹 주치의가

돼 이들과 함께 합숙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제작진은 기획 단계부터 음악방송 출연, 해외 팬미팅 등 밴드 활동을 계획하고 각종 SNS 공식 계정을 활발하게 운영해왔

다. 아이돌 그룹의 '팬 매니저' 경력을 지닌 스태프가 계정을 관리하면서 합주 연습 과정 영상 등 콘텐츠를 올려 "실제 그룹 같다"는 반응을 자아내고 있다. 이준영 등 배우들은 "정규 3집을 냈다"는 극중 설정에

따라 각 앨범 표지 사진까지 SNS에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아이돌' 속 가상의 걸그룹 코튼캔디도 비슷하다. 리더 역인 EXID 출신 안희연을 비롯해 라복 솔빈, 우주소녀 예시, 레드스퀘어 그린, 배우 한소은이 멤버이다. 데뷔 6년차까지도 빛을 보지 못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음악방송 1위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안희연(하니)의 EXID가 2014년 '위아래로' '역주행' 인기를 끈 현실과 닮아 궁극을 키워왔다.

주연 대부분이 걸그룹 출신으로 구성돼 극중 비중 있게 그려질 안무와 가장 장면을 위해 연습에도 힘을 쏟았다. 안희연은 코튼캔디 멤버들과 함께 연습하는 과정을 SNS에 틈틈이 올리며 예비 시청자들과 가깝게 만나고 있다. 이미 팬덤까지 형성돼 유튜브에서는 이들의 실제 그룹 활동 모습을 짜깁기해 만든 가상의 프로모션 영상이 공유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